

# 광주 대인동 옛 흥등가, 사양길 접어들어

## 감염병 확산·원도심 재개발 등 외부적인 영향 자치단체·경찰 합동점검서 성매매 등 적발 '0건'

광주 동구 대인동의 성매매 집결지가 감염병 확산 상황과 원도심 재개발 등 외부적인 영향으로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4일 동구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 경찰과 시행한 대인동 성매매 집결지 합동점검에서 성매매나 알선 등 위반행위가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단속은 '유리방' 업소 줄폐업 이후 속

박업소나 주택으로 옮겨갔던 속칭 '휘파리' 영업을 적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공무원과 경찰관이 사전 예고 없이 거리와 골목을 돌아다니며 호객행위 적발에 나섰다. 성매매 영업 정황은 확인할 수 없었다.

동구는 신흥 상업지구의 안마방, 오피스텔 등 변종 성매매업소에 밀려난 대인

동 성매매 집결지가 현재는 쇠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2년 가까이 지속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축 등 인접 재개발사업도 대인동 성매매 집결지가 사양길에 접어드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경찰은 계림8구역 재개발사업을 계기

로 단속 민원이 증가하자 자체적으로 대인동 성매매 집결지 점검을 최근 3개월 간 펼쳤다. 그때도 별다른 적발 실적은 없었다.

광주시는 달린 상황을 고려해 대인동 옛 유리방 골목의 성매매 집결지 지정 해제를 검토 중이다.

대인동 일원은 시외버스터미널이 있던 시절부터 광주의 대표적인 성매매업

소 집결지로 수십년 간 성업했다.

유흥주점으로 등록해 위장 영업하는 속칭 유리방에서 속이 비치는 옷을 차려입고 진한 화장을 한 여성이 손님을 끌어들였다.

5년 전인 2016년 시행한 실태조사 당시 성업했던 유리방 10여 곳은 현재 모두 폐업했다.

동구는 문 닫은 유리방 일부가 수년째

방치돼 도심 속 흉물로 지적받아 2019년 국토교통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준비했으나 무산됐다.

성매매 집결지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한 전주 '선미촌' 사례를 본보기 삼아 주민, 인권단체, 관계기관 등과 협의에 나섰다. 건물 소유주 등 사업 핵심 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최병진기자



광주 7미 음식체험 지난 1일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열린 광주 대표음식 힐링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엠마우스복지관 재가 장애인들이 강사와 함께 광주 7미 중 하나인 무등산보리밥을 만들고 있다. <광주북구 제공>

## 북구, 생활SOC 복합화사업 61억 확보

### 정부 공모 선정...2024년까지 국민체육센터 등 조성 예정

광주 북구는 국무조정실 주관 '2022년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 시비 61억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체육관, 도서관,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으로 모아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생활밀착형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운암동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총 사업비 114억 5천만원을 투입해 구 경양초등학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연면적 4천㎡)으로 건립된다.

오는 2024년까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주거지주차장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권역별 생활SOC 수요조사와 주민 의견수렴 등의 결과를 반영해 기획했으며 향후 운암 3단지 재건축,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따른 대규모 인구 유입 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구는 그동안 반다비복합체육센터, 신용 복합공공도서관 등 총 5건의 생활SOC 사업 선정으로 전국 지자체 중 세 번째인 국비 227억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해당 시설들은 내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김동수기자

## 남구, '악취 발생' 은행 열매 한달간 수거

광주 남구는 가을철 길거리 악취 발생의 요인인 은행나무 열매를 한달간 수거한다고 4일 밝혔다.

수거 작업은 오는 10월 말까지 봉선1로와 봉선2로, 양림로 등에서 중점적으로 진행된다.

또 버스 정류장과 횡단보도, 상가 주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도 수거 작업이 이뤄진다.

남구 관계자는 "고약한 냄새 발생은 물론이고 도로까지 지지분해져 대대적인 수거 작업에 나서게 됐다"며 "길거리

은행나무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 관내에는 서문대로를 비롯해 관내 30개 노선에 은행나무 5천462그루가 심어져 있으며, 이중 암나무는 1천 888그루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태훈기자

## 광산구, 주민 결정 복지예산 '눈길'

### 동마다 마을복지계획 선정...내년 사업 반영

광주 광산구 주민들이 다 함께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직접 복지예산에 발걸음하고 나섰다.

4일 광산구에 따르면 동마다 마을복지계획수립단을 구성해 주민육구조사, 간담회, 주민선호도 조사 등 의제 발굴을 추진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추진할 사업을 선정하는 마을대동회, 마을복지계획 선포식 등이 최근 잇따라 열렸다.

임곡동 마을복지계획수립단은 지난 9월 30일 임곡복지문화관에서 마을대동회를 열고, 어르신 가정의 세탁을 지원하고

안부를 살피는 '수품골 깎김미'를 마을복지의제로 결정했다. 고령에 차량이 없어 대형세탁물 작업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촌마을의 현실을 고려한 의제다.

전남 신창동 주민들은 마을복지계획 선포식을 열어 홀몸 어르신 등 돌봄이웃에게 밑반찬을 전달하며 안부를 살피는 '반찬 나눔사업', 이불 수거에서 세탁, 배달까지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창빨래터 이불세탁 지원사업', 생일을 맞은 취약계층에서 미역국, 떡, 과일 등 생일 꾸러미를 전달하는 '생일키트 전달사업' 등 세 가지 복지의제를 선

정했다.

운남동 마을복지계획수립단은 외출이 어려운 어르신과 기차나들이를 떠나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을 내년에 추진할 사업으로 정했다.

최종 결정된 마을복지의제는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내년도 연중 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주민이 주체가 돼 직접 마을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의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준 높은 풀뿌리 자치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는 따뜻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주민들의 활동을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훈석기자

## 서구, '洞' 중심 자치모델 구축한다

광주 서구가 동(洞)을 중심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구만의 자치모델을 만든다.

4일 서구에 따르면 마을청소·공원관리·광고물정비 등 관 주도의 공공서비스 일부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관한다.

주민들의 실생활에서 요구되는 행정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에서 보다 효율적

으로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구는 주민들과 실질적으로 맞닿아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가 '가장 가까운 생활정부'로서 마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과 권한을 과감히 이양하고 이를 수행할 인력을 동별 1~2명씩 단계적으로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이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결정·해결하는 마을공동체 조

직을 활성화해 동네 청소, 재활용 쓰레기 정비, 골목길 방역 등 마을 전반의 환경 정비 및 주민편의와 관련된 보조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대석 구청장은 "마을이 하나의 작은 생활정부가 되는 것으로, 자치분권 시대 높아진 주민 참여 의식을 바탕으로 예산과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라며 "서구만의 자치모델의 견고한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병진기자

## 백운 대성시장, '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

### 공모사업 통해 경쟁력 강화... "골목경제 활성화"

광주 남구는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음식점과 카페 등 다양한 업종이 밀집한 백운 대성시장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백운 대성시장은 상유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남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근거, 소상공인 및 토지 건축물 소유자의 적극적인 동의에 따라 관내 1호 골목

형 상점가로 지정됐다.

백운 대성시장 소상공인들은 운누리 상품권 가맹점 가입 및 상품권 유통을 통해 매출 증대의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소비자들의 이용 편의성까지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설개선 현대화 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시장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어 골목형 상점가

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됐다.

남구 관계자는 "백운 대성시장이 관내 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서 운누리 상품권 가맹점 가입 및 전통시장과 더불어 각종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골목경제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하며, 상인회 조직 구성은 물론이고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의 1/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조태훈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구독QR

##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평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